

# 금보다 귀한 玉



경주 식리총 출토 상감유리옥



연기 장재리 출토 채색유리옥



한반도 전역 출토 모자곡옥

옥(玉)은 예로부터 의복을 장식하는데 중요한 재료 가운데 하나였다. 옛사람들은 옥을 천지의 정수, 대지의 정물(精物)로 생각할 만큼 귀한 광물이었다. 특히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기물과 구슬은 신비한 빛으로 이색적인 매력을 발한다.

마한과 백제는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옥을 매개로 활발한 교역을 펼쳤다. 한반도 옥 문화는 신석기시대 처음 출현해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마한 사람들은 구슬(옥)을 귀하게 여겨 옷에 꿰매어 장식하기도 하고 목이나 귀에 달기도 한다.'

비단 우리 문화권에서만 옥을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니다. 동양에서도 옥은 신성한 광물로 취급

받았으며 금과 비교될 정도로 귀한 쓰임을 받았다.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의 옥(玉)을 한자리에 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화수)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특별전 '금보다 귀한 옥'을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마한역사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기념하는 전시로 특히 옥의 문화사적 흐름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진귀한 보물, 옥'에서는 한반도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옥들을 만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옥은 연옥과 경옥을 지칭한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유리·벽옥·활석·수정·홍옥수·흑옥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장식용 기물을 옥이라 불렀다. 광물의 원석과 실제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함께 전시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한반도 옥의 변화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다. 제2부 '옥, 장식에서 상징으로'에서는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옥을 만난다.

신석기시대 처음 등장한 옥은 둥근고리모양의 장식품인 '결상이식'이다. 주로 바닷가를 따라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청동기시대 옥은 권력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변화했는데 권력과 연관되면서 전문적인 옥 가공시스템이 갖춰졌다. 철기시대에는 옥이 검이나 거울 등의 구성물로 활용되면서 권력자들에 무덤에 부장된다.

제3부 '해상 실크로드와 옥'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교역했던 마한과 백제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코너다. 해상 실크로드는 기원전 2세기에 완성됐으며 이후 아시아 전역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루트였다. 자연스레 마한과 백제인들은 옥을 매개로 활발한 교역을 펼쳤다.

특히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홍옥수(카넬리안)와 다양한 색상의 유리구슬은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한반도로 수입됐다. 이 과정에서 마한과 백제권역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옥들은 당시 해상 교역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고대에 화려하게 꽃피웠던 옥 문화와 현대까지 이어지는 옥 문화를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제4부 '금보다 귀한 옥'이 그것.

4~6세기 권력자들은 장식문화를 공유하며 완성했다. 이 시기에는 다채로운 유리구슬을 바탕으로 비취색의 굵은 옥, 푸른색의 대롱 옥, 고도의 기술이 가미된 채색유리옥과 상감유리옥 등을 엮어 화려함을 더했다. 이렇듯 고대에 꽃핀 옥 문화는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장인들에 이어지며 우리의 옥 문화는 계승, 발전되고 있다.

한편 전시 기간에는 전남도의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가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전시와 연계한 국제 학술심포지엄 '아시아의 옥문화'가 12월 17일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061-330-78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선사부터 고대까지 '옥' 한자리에 국립나주박물관, 30일부터 특별전 12월 '아시아의 옥문화' 심포지엄



여수 안도패총 출토 결상이식



'구성-물빛에 담다'

## 화사한 꽃들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인체미

류영도 'nud-조형적 구성' 전, 28일~10월 4일 무등갤러리

서양화가 류영도 작가하면 떠오르는 작품은 여성의 누드다. 다양한 몸짓과 표정의 여성들은 때론 도발적이고, 때론 수줍은 듯한 모습으로 화폭에 등장한다. 세심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들은 배경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추상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화면을 만들어낸다. 때론 상상의 이미지가 접목되면서 환상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류영도 작가 개인전이 28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광주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지난 8월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 이은 전시다. 서울로 작업실을 옮기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류 작가는 'nud-조형적 구성'을 주제로 신작 40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나온 작품들은 1000호 2점을 비롯해 대작들이 많다. 큰 화면을 장악하며 제작한 작품들은 그가 추구하는 '구상과 비구상'의 만남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전시작 중 눈에 띄는 건 역시 다채로운 누드화다. 수없이 많은 대성 등을 통해 비율과 균형 등을 공부하며 여체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표

현한 작품들은 자유자재의 곡선미가 돋보이는 다양한 포즈와 다채로운 색감이 어우러져 눈길을 끈다.

작품 속 여체들의 포즈는 무엇보다 당당하고, 생의 환희를 표현하는 과감한 몸짓으로 개성을 발산한다. 또 다른 작품들은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단순한 여체의 묘사를 넘어 현대적인 조형성에 방점을 둔 류 작가의 작품에서, 배경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소재를 살펴보는 건 또 다른 즐거움이다. 화사한 꽃과 나무, 신비로운 자연의 모습, 마치 환영처럼 보이는 얼룩말과 사슴, 가능할 수 없는 추상성 강한 선과 면 등이다.

또 적절한 여백의미를 살린 화면은 여유로움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덧붙여보도록 권한다.

한국현대미술작가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그의 작품을 보면 무엇보다 인물묘사에 감정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록화 중 백범 김구 선생을 그리기도 한 그의 인물 묘사는 연필 소묘로부터 시작된 탄탄한

기초에 기반한 것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마치 살아있는 듯한 다채로운 표정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그가 표현하는 꽃그림 역시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구성-화중지화(花中之花)' 등의 작품은 극히 화려한 색감이 대형 꽃이 화면 전체를 장악하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

류 작가는 도록 서문에서 이번 전시에 대해 "인간의 몸짓의 언어를 조형적 재구성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며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과 배경에 나타난 비조형적인 추상형태를 점목, 구상과 비구상의 만남을 추구해 여백의미를 강조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한 류 작가는 한국문화예술상, 광주문화예술상 특별상, 대동미술문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35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서울 류아트센터 대표,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부이사장, 신형회 회장 등을 맡고 있는 류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전남도·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한민국 6·25 전쟁 60주년 기록화, 광주과학기술원원장 역대 초상화(1998-2016) 등을 제작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여성가족재단 10주년 '미안마 분쟁지...' 국제포럼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하 재단)은 28일 오후 2시 재단 3층 북카페 은새암에서 '재단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미안마 분쟁지에서의 인권과 광주 시민의 역할'이다.

이번 포럼은 미안마 분쟁지역의 인권실태 조사 결과와 풀뿌리 여성단체의 여성, 인권 등 국제지원활동을 공유하고 국회, 행정, 재단과 함께 세계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시민의 역할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황철철 광산구장애인복지관장은 '우리는 언제쯤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친주 팔레트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황정아(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대표는 '풀뿌리 공동체들의 국제 연대 확대: 아시아, 여성인권, 연대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어 이용빈 국회의원, 소우예포(KRC한국지부)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아시아의 인권 문제와 한국의 역할, 지역에서 아시아 인권에 접근하기 등에 대해 토론한다. 포럼은 대면과 비대면(유튜브 생중계)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670-053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국립현대미술관장 이진희컬렉션 해설

10월14일까지 'EBS 클래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인 'EBS 클래스@'는 다음 달 14일까지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이진희컬렉션'을 해설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세기의 기증'으로 불리는 이진희컬렉션은 지난 7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MMCA 이진희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이라는 이름으로 전시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예약 관람만 가능한 상황이다.

방송에서는 이진희컬렉션을 대표할만한 작품 12점과 해당 작가들의 인생 스토리를 고성능 빔 프로젝터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윤 관장은 한국인의 열을 그린 국민 화가 이중섭의 '황소', 한국 백자의 아름다움을 담은 김환기의 '여인들과 향아리', 어두운 시절 담담하게 일상을 그려낸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라 불리는 나혜석의 '화령전작약', 불꽃 같은 영혼의 화가 천경자의 '노오란 산책길'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월~목요일 밤 11시 55분 EBS 1TV, 밤 10시 20분 EBS 2TV에서 방송하며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 할 수 있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